



**양계 박람회 개최,
참관자 관찰력이 중요하다**

지난 '91 한국양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양계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시발로 오는 19일~21일에 무역센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두번째 행사가 되는 '93 한국양계 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란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가지 물품을 모아 벌여 놓고 관중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판매, 선전, 우열심사 등도 하게되는 것이다.

이번 '93 한국양계 박람회는 총 3억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일에 별 차질 없이 그 위용을 나타내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행사는 국·내외에서 연일 개최되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이중 양계와 관련된 행사는 전 세계에서 개최가 되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련자들이 참관을 하여 최신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 기회를 갖는 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93 한국양계 박람회는 제1회 때부터 타 박람회와는 색 다르게 생산자, 소비자, 관련업계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타 박람회 주최자들을 놀라게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양계인들은 박람회를 마치 자기들의 위로 잔치쯤으로 착각하여 "선물도 없다"느니, "볼 것도 없는데 괜히 오라고 한다"고 불멘 소리를 하기까지 한다. 비단 국내 행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비싼 여행비를 들여 박람회에 참여하여도 행사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고작 4~5시간 정도라 한다. 늘 걸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결론이다.

일본인의 경우 한 코너에서 관심있는 분야이면 3~4시간씩 메모하고, 촬영하여 정보습득에 완벽을 기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때 우리도 박람회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를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끔 세미나장에서 좋은 내용의 강의가 있지만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농장관리는 엉망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육종도 많이 개량되어 품종에 따라 사양기법도 많이 달라졌고, 자동화 시설은 첨단산업이라고까지 할 정도이다.

234개 품목이 전시되는 '93한국양계 박람회는 누가 누굴위해 만든 행사가 아니다. 모두가 필요해서 기회를 만든 만큼 참관자는 방관하지 말고 구석구석을 돌며 한가지 정보라도 더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계산물의 소비창출, 신상품 개발이 최우선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반 시장에서 몇만원에 내놓아도 안팔리는 옷이 고급 매장에서 몇십만원에 선보이면 날개 돋친듯이 팔린다고 했으나 경제구조 및 사회분위기가 안정되면서 소비패턴은 서서히 경제성에 입각하여 좌우되고 있는 듯하다.

양계산물도 이에 편승하여 내용물이야 어떻든 걸만 치장하여 비싸게 내놓으면 잘 팔린다는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표를 붙여 출시를 하였으나 불과 몇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고가 보다는 저렴한 쪽을, 저렴하면서도 세련된 것을 선호하여 공급자들을 당혹하게 만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소비창출의 핵심은 무조건적 선택을 기다리다기 보다 선택되도록 공급을 유도하는 길이다. 즉 신제품을 만들어 소비자가 사도록 상품을 공급하고 홍보하는 것이 최상이랄 수 밖에 없다.

과거 양념통닭이 나타나면서 소비가 증폭되더니 시간이 거듭될수록 변해가는 입맛에 제품개발이 따라주지 못하여 쇠퇴하자 소비둔화를 가져왔다.

다행히 금년초부터 장작불에 구운 바베큐 닭고기가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나타나면서 소비에 일대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산지 닭값이 kg당 1600원선을 넘어서는 현상까지 보였다. 물론 질병도 많아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어쨌든 신선한 기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했다는 측면은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맛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명에 그칠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계열화 사업이 부진해지는 것도 신뢰가 없어서인데 늘 획기적인 소비창출의 시도는 상인들의 상술에 의해 나타났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탓으로 단기간에 끝나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

가격안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상품 개발 보급에서도 계열화사업은 성공이 되어 확실한 식품공급 차원에서 다루어져야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속히 부식이 아닌 식사용으로의 양계산물 신상품이 개발되어야 양계산업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양축자금지원,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신농정 방향이 수립되어 우리나라 농업은 일대 구조조정에 있어 개혁에 가까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실상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특이한 점이 없다고 불만섞인 소리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구조개선은 실질적으로 당장의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는 투자논리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가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넣어야 실효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기반확충을 위해 시설개선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까지는 거리감이 적잖다. 이미 양축자금,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닭계열화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부화장 시설지원 등 항목만도 엄청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은 자금을 활용하는데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는가 하면 자금 사용 신청을 하지도 못하는 농가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확실성을 기하든지 아니면 그간의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일정 비율의 담보한도를 대폭축소하여 성실히 양계업을 하는 농가들이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시설자금이 방출되어 생산을 과잉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를 믿고 책임회피로 지원자금 자체를 감액하거나 삭제할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의 확보를 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업자로 적합하여 지원대상이 되었다면 지원금의 최대한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전액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굳이 회수를 염두하여 지원을 한다면 처음 심사 때부터 담보능력도 함께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결만 요란스러운 정책으로는 신농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분명하다. 새로운 정책제시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운용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가 신농정이 될 것이다. **안 14**